

광주디자인센터, 지역 주력 中企 지원

가전·의료 등 5개社 제품 디자인·홍보 영상 제작 제품 고급화·판로 개척...28일까지 디자인회사 공모

주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제품을 만들어왔던 지역 보일러 제조업체 A사는 최근 농산물건조기 제품 디자인을 개발, 자사 브랜드로 시장에 내놓았다.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자사 브랜드제품으로 승부를 건 것이다. 또 천연 화장품 제조업체인 B사도 새로운 브랜드와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출시해 미국, 유럽, 중국지역 바이어와 수출 상담에 분주하다.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박우복)가 가전과 의료 등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제품 고급화와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해 디자인 지원에 본격 나섰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전, 의료 등 광주 주력산업군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을 수행할 디자인전문 회사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주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은 광주 5대 주력산업 중소기업 제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 매출 및 수출 증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혜 대상 기업은 5대 주력산업(복합금형·디자인·생체의료소재부품·스마트가전·조정밀생산가공시스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는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 홍보동영상이다.

제품디자인 지원 품목은 ▲HEPA 필터 공기청정기 ▲특수소재 소재 히터 ▲생체 신호 분광분석 시스템 ▲수소누출탐지 키트 ▲공기정화기 등 5개, 포장디자인 분야는 ▲대기전력 콘센트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장치 ▲컬러 콘택트렌즈 ▲대기 전력 콘센트 등 5개 품목이다. 제품디자인은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포장디자인은 최대 1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디자인센터는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한 홍보 동영상 제작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엔 일부 생산라인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도 포함, 우수 제품의 조기 상용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신속 지원시스템을 가

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30일 지원 대상품목(기업) 선정을 마무리하고 디자인 개발을 수행할 디자인 전문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전문기업은 광고일 기준 광주지역 소재 디자인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 록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은 28일 오후 4시 마감하며, 다음달 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하게 된다.

광성이 광주디자인센터 미래전략팀장은 “디자인 수행기업 선정 후 디자인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중소 제조기업 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1.11 (+3.85)
- ↑ 금리 (국고채 3년) 1.23% (+0.01)
- ↑ 코스닥 700.90 (+0.62)
- ↑ 환율 (USD) 1136.40원 (+2.50)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프리드리히샤펜에서 열린 글로벌 해외바이어 미팅에서 트렉스타 관계자들이 바이어들 앞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트렉스타 제공>

트렉스타, 해외서 80억 수출 계약

독일서 바이어 미팅...영국·오스트리아·일본 등 8개국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대표 권동철)가 지난 12일 독일 프리드리히샤펜에서 글로벌 해외바이어와 미팅을 갖고 80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바이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스웨덴, 일본 등 8개국 대표 회사들이다.

글로벌 미팅은 2017년도 가을 겨울(F/W) 글로벌 제품 선정을 위한 바이어 미팅 행사로 연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 계약 진행 등 트렉스타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이다.

이번 글로벌 미팅에서 트렉스타는 유럽지역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올 상

반기 50억원 규모 유치에 이어 8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어, 지난해 126억 원 수출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성장을 세계시장에서 이뤄냈다고 트렉스타는 설명했다.

권동철 트렉스타 대표는 “내년 겨울 빙판, 눈길에서 안전한 보행과 산행을 위한 특허기술을 전세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솔 제품 개발과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한 갑피소재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계환경 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철 트렉스타 대표는 “내년 겨울 빙판, 눈길에서 안전한 보행과 산행을 위한 특허기술을 전세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솔 제품 개발과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한 갑피소재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계환경 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글로벌 미팅에서 트렉스타는 유럽지역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올 상

반기 50억원 규모 유치에 이어 8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어, 지난해 126억 원 수출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성장을 세계시장에서 이뤄냈다고 트렉스타는 설명했다.

권동철 트렉스타 대표는 “내년 겨울 빙판, 눈길에서 안전한 보행과 산행을 위한 특허기술을 전세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솔 제품 개발과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한 갑피소재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계환경 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글로벌 미팅에서 트렉스타는 유럽지역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올 상

한전, 기상청과 ‘지진 영향평가 기술’ 공동개발

기상관측소 155곳·변전소 15곳 정보 분석 진도 예측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기상청과 18일부터 지진발생 후 한반도 전역의 진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진 영향평가 기술’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번 한전과 기상청의 공동기술개발은 기상청이 국가 지진관측망의 확충 및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계획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의 핵심기술이다.

한전과 기상청은 이러한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2017년까지 한전에서 운영하는 전력설비 지진대응시스템에 실증과 신뢰성을 검증한 후 국가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국민에게 휴대전화와 방송 등을 통해 지진조기경보를 알려주는 대국민서비스를 제공, 지진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발전소, 철도, 반도체 공장 등 지진취약설비와 중요 국가시설을 비롯해 국민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자체개발한 ‘지진 영향평가 기술’은 기상청의 155개 관측소와 한전의 15개 변전소에서 관측되는 지진 규모와 진도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모든 지역의 진도를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건물, 공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지역 어르신 3000여명에 삼계탕 나눔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18일부터 이틀간 인원, 지점장을 비롯한 지역사랑봉사단 100여명이 초복을 맞아 광주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남구노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 나주노인복지관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광주은행은 무더위를 이겨내는 보양식인 삼계탕과 여름과일로 점심을 차려 복지관에 오신 3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으며, 배식·설거지, 식당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김양수 부행장은 “무더운 여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 무척 기쁘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성과연봉제 도입 초읽기...은행권 ‘폭풍전야’

은행연합, 이번주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노조 총력 투쟁 결의

시중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외부 용역을 마무리하고 은행들과의 조율을 거쳐 금주 내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의 괴리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성과연봉제

제도를 추진 중이다. 관리자의 경우 같은 직급끼리 연봉 차이를 최저 연봉의 30%, 일반 직원은 20%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이를 40%까지 늘리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 폭을 조금 확대한 수준이다. 수은은 총연봉에 대비한 성과연봉의 평균 비중은 30%로, 개인별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 폭은 2배다.

은행연합회는 초안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은행별

로 사정이 달라 성과연봉 도입 폭이 달라질 예정이지만 금융 공공기관보다 성과 폭이 좀 더 클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파업을 포함해 총력 투쟁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오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지부별 순회집회,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9월 중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대천·명사십리·영암 기찬랜드

금호고속, 휴가지 노선 확대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은 피서철을 맞아 광주에서 유명 해수욕장(대천, 명사십리), 영암 기찬랜드를 오가는 노선을 확대 운행한다. 광주~대천해수욕장 노선은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가동된다. 광주에서 1월 2회 오전 11시, 오후 2시10분, 대천에서 오후 2시40분, 오후 5시40분에 출발한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광주~명사십리 노선과 광주~영암 기찬랜드 노선을 운영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고객 편의 차원에서 노선을 개통했다”며 “편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360-8114. /김대성기자bigkim@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샷강 다슬기 성업중!!

샷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달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각종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춘달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 *다슬기 춘달백숙
- *다슬기 오리백숙
- *삼계탕·수제비·초무침
- *다슬기 영양 들솥밥

샷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화순읍내 소재수만리

샷강 다슬기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스M 대신프리모

대신프리모가발